

GIST 박주성·이후상 학생, 자동차 손해배상 논문 공모전 수상

- 박주성(학사과정)·이후상(박사과정) 학생으로 구성된 '어시스트' 팀, AI 기반 교통사고 분석 기술 접목해 보험 제도 개선 방안 제시... 교통사고 분석 AI 스타트업 창업 실전 경험 바탕
- 교통사고 경상환자 보상 시스템 개선 연구 통해 '정액보상제' 도입 방안 제안, 과잉진료 감소 및 보험료 인상 억제 기대... 과학기술 기반 사회적 문제 해결 사례 주목



▲ (왼쪽부터) GIST 박주성 학생, 박옥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본부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학사과정 박주성 학생과 박사과정 이후상 학생으로 구성된 '어시스트' 팀(지도교수: 류제하)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창간한 전문 학술지 《손해배상책임연구》의 논문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어시스트' 팀은 교통사고 분석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을 창업·운영 중이며, 이번 수상 논문은 기술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 제도 개선이라는 정책적 영역으로 연구를 확장한 결과물이다.

수상 논문은 《손해배상책임연구》에 게재될 예정이며, 제목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대인보상 정액보상제 도입방안 및 효과: 경상환자 중심으로」이다.

'어시스트' 팀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보상 체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액보상제'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AI 기반 사고 분석 기술과 교통사고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액보상제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과 기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한 점이 주목받았다.

정액보상제는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치료비를 절약할 경우 잔여 금액을 피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잉진료 및 소송 유인을 줄이고, 보험사의 비용 절감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주성 학생은 “교통사고 분석 AI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술과 제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